

JIFF '한국단편경쟁' 본선 진출작 발표

<전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본선 진출작을 발표했다.

작품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된 '한국단편경쟁' 공모와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된 '지역영화 공모'를 통해 총 785편이 출품됐고 엄정한 예심을 거쳐 최종 19편이 선정됐다.

작품모집에 있어 예년 661편 대비 87편이 증가하여 역대 최고 편수에 해당하는 748편이 출품됐다. 여기에 지역영화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한 '지역영화' 공모를 통해 출품 신청을 한 37편이 더해져 이번 '한국단편경쟁' 본선 진출작 공모 선정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예심위원들은 전국의 영화·영상 관련

조직위, 최종 19편 선정
출품작 대부분 '집' 주제로

아시안 프리미어 1편 제외
나머지 월드 프리미어 공개

학과 학생들의 공모 참여가 대거 늘어난 것을 출품작수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국단편경쟁' 예심위원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화평론가 변석찬·송효정·남다은이 참여했다.

예심위원들은 유사한 경향 속에서도 다른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닌 작품들에 지지

를 보냈다고 밝혔다.

남다른 평론가는 "학교폭력과 취업난에 대한 고민이 대다수였던 지난 몇 년의 경향과 달리, 올해는 유독 집과 관련된 주제가 많았다"며 올해의 경향을 평가했다. 이와 관련 송효정 평론가는 "지난 10년간 단편에 빈번히 소환되었던 재개발에 따른 물리적 공간에 대한 관심이 실존적 자리를 잃고 경계를 오가는 심리적 공간의 문제로 변화된 듯 보인다"고 작품의 경향을 분석했다.

변석찬 평론가는 "드론 쇼트의 증가, 음악에서 자작곡의 증가, 대사 및 내레이션에서 외국어 사용의 증가" 등 표현의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를 흥미로운 현상으로 지적하면서 "새로운 요소들이 단편영화의 언어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정서

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단편경쟁' 본선 진출작 19편의 특이점은 '아시안 프리미어'로 상영되는 1편을 제외하고, 18편의 작품이 전 세계 최초상영인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다는 점이다.

유형별로는 극영화가 15편·실험영화 2편·애니메이션 1편·다큐멘터리 1편으로 예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역영화 공모를 거쳐 선정된 작품 1편도 포함됐다.

이들 작품은 오는 4월 27일~5월 6일 열리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대상·감동상·심사위원특별상을 두고 경합을 벌인다.

/정해은 기자

10대의 마음 편견없이

박성우 시인, 청소년시집 '사과가 필요해' 출간

박성우 시인이 청소년시집 '사과가 필요해'를 펴냈다. 박 시인은 첫 번째 청소년시집인 '난 빨강'(2010년)을 통해 불모지나 다름없던 '청소년시'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을 얻으며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시집은 '난 빨강'의 성취를 이으면서 한층 무르익은 시 세계를 보여 준다. 요즘 청소년의 삶에 대한 예리한 포착과 더불어 따뜻한 공감에서 길어 올린 70편의 시를 선물처럼 정성스럽게 묶어냈다.

시인은 자신이 청소년의 정서와 감수성에 깊이 동화하면서 10대의 마음을 편견 없이 담아냈다. 청소년기는 "선생님한테 미친 듯이 혼나고" "바라바라 악을 쓰며 엄마한테 대들"(사과가 필요해 중에서)기도 하지만, "웃으려고 하면 할수록 눈물이 더"(어느 날 갑자기 중에서) 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짧는데"(가솔 전말기 중에서)라며 진지한 고민에도 젖어 드는 시기다. 시인은 그러한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을 너무 밝거나 어두운 모습으로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고 맑은 시심으로 그려 낸다.

또 노동(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가난과 외로움, 여자아이의 성 등 감잡힌 현실에는 작은 구멍을 내어 해방감을 맛보게 하거나 속 깊은 곳의 고민을 헤아리는 등 다양한 시로 10대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걱정 마, 걱정 말고 힘내. 니가 그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니가 지금 밝은 곳에 있다는 증거 아니냐"(걱정 마) 전문

시인은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원광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거미'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거미> <가쁜 잠> <자두나무 정류장>, 동시집으로 <불량 꽃게> <우리 집 한 바퀴>, 그림책으로 <압축식당>이 있으며 산문집 <박성우 시인의 창문 열쇠>를 냈다.

/정해은 기자

남원 문화 22선 전자책 발간

남원의 대표적인 문화22선이 스토리텔링이 되어 한권의 전자책(비파툼)으로 나왔다.

남원시 공무원이자, 지리산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근(56)씨가 내어놓은 스토리텔링 22선은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역사 문화자원들이다.

스토리텔링으로 새롭게 태어난 남원 문화22선은 연대기별로 상세히 정리되었다. 남원지역 이야기의 시원을 가진 선사시대부터 추정되는 대곡리 암각화에서부터 빨치산의 이야기를 품은 고기리 흑부리 소나무까지 22개의 남원 문화가 그것이다.

남원문화의 스토리텔링은 1편 남원 이야기의 씨앗 대곡리 암각화, 4편 달나라로 가는 관한투 길, 7편 가야 철의 영혼이 진화된 남원 길, 8편 백천수(白泉水)가 솟는 쌀뜨물 샘을 가진 남원 파근사지, 9편 남원성 전투 부상병을 치료한 요천 병고(氷庫), 10편 달나라에서 빌려온 남원 추어탕 등은 남원이 이야기고을 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내용으로 평가 받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김제시, 오늘 문화누리카드 발급

김제시는 2월 28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 개시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의 세대원으로 관내 수혜대상자 1만2,300여명 중 60%에 해당하는 7,400여명에게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6세 이상의 개인에게 지난 해보다 1만원 인상된 6만원이 상향 지원된다.

카드발급은 거주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발급은 3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를 통해서 가능하며 세대원이 여러명일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최대 7매(42만원)까지 합산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동일카드로 재충전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제=락노예 기자

“Again 2002 군산이여 일어나라”

군산시립예술단, 내달 2일 군산예술의전당서 기획연주회

군산시립예술단이 오는 3월 2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군산이여 일어나라(Again 2002)'라는 주제로 합동 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시련과 국민들의 아픔과 절망을 다양한 음악적 감정으로 위로하고 Again 2002년의 감동과 환희를 입체적 음악으로 표현해 군산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박지훈 지휘자가 작곡한 칸

타타 '조국이며', 뮤지컬 '영웅'과 '명성황후' 그리고 오페라 '안창호' 등 다양한 음악이 웅장한 선율로 이어진다.

2부에서는 'Again 2002' 군산이여 일어나라 라는 작품으로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2002년 월드컵의 분위기를 재현하며 시립예술단과 3.1절을 의미하는 301명의 협연자들이 동시에 한 무대에 출연해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시립예술단 박지훈 지휘자는 "올해 첫

번째 합동 기획 연주회는 시민여러분에게 특별한 봄의 기억을 선물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와 관련해 널리 알려진 시대 가곡과 대한민국의 슬픔, 희망, 기쁨 등을 소재로 곡을 선정해 갈라 콘서트 형식의 연주회로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6세 이상 입장가능하며 공연티켓은 전석 5000원으로 금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며, 현장 티켓은 공연당일 공연 한 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구입 가능하다.

/군산=문정근 기자



문화생활 힘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클래식 하모니

헤르츠아카데미원드앙상블 특별 연주회 성료

헤르츠아카데미원드앙상블(지휘자 손성한)이 창단 2주년을 기념해 지난 2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특별 정기 연주회를 열었다.

헤르츠아카데미원드앙상블은 음대에 재학 중인 학생과 졸업생들이 앙상블을 이

루 지난해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왕성한 공연 연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프랑스의 대학축전서곡(Academic Festival Overture)을 시작으로, 클라리넷 김민욱이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을

연주회에 이어 말러 심포니 1번 4악장으로 성황리에 연주회를 마쳤다.

특히 이날 연주회에는 사랑의 열매, 전주시 여성가족과, 생활복지과의 도움으로 평소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지역아동들을 초청해 아이들과 클래식 하모니로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손성한 지휘자는 "단원들과 함께 앞으로 더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의 장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공연 & 전시

전북도립미술관, 김주환의 '인간·삶·축제'

김주환 작가는 각각 각색의 무늬를 띠는 삶의 표정을 화폭에 열거설기 엮어낸다.

그의 작품 '인간·삶·축제' 속 인간은 평면화 된 몸짓으로 표현되며, 이들은 군집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을 통해 작가는 인간의 소통과 어려움을 말하려 한다.

작가는 물감을 마구 흠뿌리는 색채놀이로 하듯 원시적이고 다양한 붓질을 하며 인간의 형상과 사물들을 그리고 자르고 붙인다. 이는 별처럼 때론 눈꽃송이나 빗방울처럼 흩어지고 덩어리를 이루며 우리네 삶 속의 인간관계를 담아낸다.

그는 작품을 통해 제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인생을 고단하고 힘든 것으로 여기기보다 삶,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의 소중함을 묘사하고자 한다.

김 작가는 "기쁘면 기분 대로·슬프면 슬픈 대로·평안하면 평안대로 삶이 크기와 무게가 어떠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살아있는 있음에 감사하며 인생을 축제처럼 엮어갈 바란다"고 말했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및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Independants전, 현대미술제, 한국미술대상전, 서울국제 Drawing Biennale, 대한민국 미술대전, 한국미술협회전 등 다수의 기획 초대전에 참여했다.

2006·2009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회원, 오리진화협회 회원, WAVE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시는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3월 1~6일 열린다.

/정해은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 <2017년 2월 28일>

<p>▷쥐띠 48년생: 망설이지 말고 진행하라. 예상외의 좋은 결실이 따른다. 60년생: 다른 사람과 생각이 잘 통하는 운이다. 72년생: 무실코 했던 일이 구실이 되어 돌아오는 운. 84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금전관리에 주의하라.</p>	<p>▷소띠 49년생: 과식은 금물. 61년생: 정신적인 소모가 큰 하루다. 73년생: 때를 기다려야 하는 운이니 현재에는 내실을 다지고 기다려야 한다. 85년생: 흑백이 분명한 태도가 오히려 구실을 만드니 언행에 주의하라.</p>	<p>▷호랑이띠 50년생: 정신이 맑지 않을 때이다. 62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때니 무리한 추진은 삼가야 하는 운이다. 74년생: 동료나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는 운이다. 86년생: 매사 혼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운이다..</p>	<p>▷토끼띠 51년생: 생각 없이 한 행동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63년생: 준비된 사람은 좋은 기회를 맞이해 기쁜 일이 생기는 길운이다. 75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 운이다. 87년생: 동 뒤는 어둠과 내가 향하는 곳은 밝다.</p>
<p>▷용띠 52년생: 서두르면 실패하니 계획을 세워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 좋을 때다. 64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익이 있으니 베풀어라. 7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88년생: 공격적 일에 빛을 발할 수 있다.</p>	<p>▷뱀띠 53년생: 무실코 던진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65년생: 곤란한 일이 생기면 소외와 의논하라. 77년생: 뒷사람과 함께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는 운이다. 89년생: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p>	<p>▷말띠 54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투지나 투기는 삼가고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한 운. 66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은 좋다. 78년생: 원리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운. 편법은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90년생: 사람을 만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운이다.</p>	<p>▷양띠 55년생: 고집은 금물, 자기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는 운. 67년생: 다른 사람과 불화할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고 실물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79년생: 건강과 금전운 모두 약하니 무리한 추진은 손실만 키우게 된다. 91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p>
<p>▷원숭이띠 56년생: 문서에 결실이 있다. 68년생: 뒷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 동료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쉽게 이룬다. 80년생: 동성보다 이성과 기운이 잘 통하는 때. 92년생: 서두르면 실패하니 물다리로 두들겨보고 건너는 지혜가 필요하다.</p>	<p>▷닭띠 57년생: 작은 일을 간과하면 큰 화가 되어 돌아온다. 69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소화기와 기관지 계통에 신경써라. 81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기니 주의해야 하는 운. 93년생: 먼저 베풀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p>	<p>▷개띠 46년생: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작은 것은 이루어지는 운이다. 58년생: 자신을 낮추면 큰 복으로 돌아오는 운이다. 70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성을 주의하라. 82년생: 지금은 뒤로 물러서야 하는 운이다. 건강에도 주의하라.</p>	<p>▷돼지띠 47년생: 처음엔 좋지 않으나 나중에는 이루어지는 운이니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59년생: 지나친 의욕은 실패를 부른다. 정도를 지켜야 하는 때. 71년생: 절제에 취약한 운이니 건강에 유의하고 섭생에 주의하라. 83년생: 일에 막힘이 생기니 욕심을 금물.</p>